

힘내라! 소상공인! 최정윤 이은낙지 대표

# 가업승계 줄어드는 외식업...전통 잇고 혁신 더하다

부모 세대 30년 손맛 계승  
 현대적 재해석으로 경쟁력 확보  
 .....  
 밀키트·라이브커머스 확장  
 지역 넘어 K-푸드 브랜드 도약



▶ 이은낙지는 가업을 기반으로 출발했지만 이를 현재의 외식 트렌드에 맞게 재구성하며 '전통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은낙지는 부모 세대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하되 현대 소비자 입맛에 맞게 개선하는 등 '차별화'까지 이뤘다.

최근 자영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부모 세대의 가게를 자녀가 이어받는 '가업 승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불확실한 경기,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가 맞물리며 오랜 전통을 이어온 동네 식당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외식업계는 노동 강도가 높고 수익 변동성이 큰 탓에, 자녀 세대가 가업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힌다.

수십 년간 이어온 '손맛'과 노하우가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못한 채 사라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30년 전통의 낙지 요리를 계승해 새로운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있는 소상공인이 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이은낙지' (대표 최정윤)는 부모 세대가 일군 30년 전통의 손맛을 이어받아 가업을 계승한 외식업체로 지역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식당 운영을 넘어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가업승계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은낙지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백년가게'로 선정된 부모님의 낙지 요리 노하우를 그대로 이어받아 탄생했다.

오랜 세월 축적된 조리 방식과 손맛, 그리고 음식에 담긴 철학까지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창업과는 결이 다르다.

이은낙지는 가업을 기반으로 출발했지만 이를 현재의 외식 트렌드에 맞게 재구성하며 '전통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매장에서 사용하는 소스는 모두 직접 개발·숙성된 것으로, 부모 세대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하되 현대 소비자 입맛에 맞게 개선하는 등 '차별화'까지 이뤘다.

자극적인 매운맛 대신 깊고 깔끔한 풍미를 강조해 '건강한 매운맛'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메뉴 전반에도 반영됐다.



최정윤 대표

낙지 본연의 영양과 맛을 살리면서도 속이 편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는 최 대표의 철학 아래 조리된 메뉴는 외식의 부담을 줄이고 집밥 같은 안정감을 제공하며 고객들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여기에 기존 낙지 전문점의 전통적이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깔끔하고 아늑하게 재구성한 인테리어는 젊은 소비자층까지 아우르며 가업이 세



최정윤 이은낙지 대표는 지난해 외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경영 교육 프로그램인 남도외식카네기클럽을 졸업함과 동시에 전라도 으뜸맛집 166호점으로 선정됐다.

로운 세대와 연결되는 점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최 대표는 외식업 관련 협회 활동과 전문 교육 과정을 꾸준히 이수하며 경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왔고, 지역사회 봉사 및 상인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가게를 물려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최 대표의 사업 확장도 눈에 띈다. 이은낙지는 최근 밀키트와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진출하며 온라인 중심의 외식업 구조를 넘어섰다. 부모 세대의 전통 레시피를 그대로 구현한 제품을 비대면 채널을 통해 판매, '집에서도 즐기는 백년가게의 맛'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현대홈푸드 로컬 간편식 지원사업, 지역 방송 프로그램 참여, 광고사업 선정 등은 이은낙지가 단순한 지역 식당을 넘어 브랜드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향후 계획 역시 '가업의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백년가게 레시피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밀키트 브랜드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전통의 신뢰성과 현대적 기술을 결합해 K-푸드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최정윤 이은낙지 대표는 "부모님께서 지켜오신 맛과 정성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자 자부심이다"며 "단순히 가업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치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러 "전통을 기반으로 한 밀키트와 브랜드 사업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K-푸드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j1404@gwangnam.co.kr

## 현대차·기아, 차량용 UVC 램프 살균 기술 공개

### 세계 최초 인체에 영향 없는 살균 파장·세균·냄새 해결

현대자동차·기아가 자동차 실내 위생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현대차·기아는 인체에는 영향이 없고 세균에만 작용하는 UVC (자외선) 파장대를 플라즈마 램프 방식으로 구현. 탑승객이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실내 공간 곳곳을 살균하고 탈취하는 '플라즈마 케어 UVC' 개발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UVC 빛을 활용한 살균 기술은 이미 컵 살균기, 칫솔 살균기 등 생활 가전을 비롯, 현대차 '싼타페', 기아 '카니발' 등 차량의 암타스트 내부와 크래시페드 수납함에 적용돼 일상 속 위생 관리에 활용돼 왔다.

기존 자외선 살균 기술은 LED로 구현한 255~280nm (나노미터) 대역의 UVC 빛을 활용하고 있다.

이 파장의 자외선은 살균력이 우수하지만 피부와 눈에 직접 닿으면 유해할 수 있어, 사람의 접촉이 제한된 밀폐된 공간에서 작은 물건을 살균하는 용도로만 사용

됐다. 반면 현대차·기아가 개발한 '플라즈마 케어 UVC'는 LED로 만들기 어려운 200~230nm 대역의 Far-UVC (원자외선) 빛을 플라즈마 램프 방식으로 구현해 살균에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Far-UVC 빛은 살균력이 우수하고 병원, 학교 등에 쓰일 정도로 인체에 안전하기 때문에 탑승객이 차량에 있는 상황에서도 내부를 실시간으로 살균할 수 있다.

특성상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강력한 살균 효과를 내면서도, 투과성은 낮아 피부 표면의 각질층까지만 도달해 체내 깊숙이 침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세균과 바이러스는 인체 피부처럼 여러겹의 보호층이 없기 때문에 Far-UVC 빛이 세포 내부까지 도달해 DNA 구조를 파괴할 수 있다.

이밖에도 플라즈마 케어 UVC는 차량 실내 악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

세균과 미생물은 증식 과정에서 냄새 유발 물질을 발생시키는데, 플라즈마 케



플라즈마 케어 UVC의 파장 에너지 측정 모습.



플라즈마 케어 UVC 작동 그래픽.

어 UVC가 살균 과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현대차·기아는 이날 '플라즈마 케어 UVC' 기술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활용 모습을 담은 영상을 함께 선보였다.

영상에는 탑승자가 있는 차량 실내 개방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Far-UVC 빛에 대한 설명과 함께 '플라즈마 케어 UVC'의 안전성, 내구성, 살균 성능 등 주요 기술적 특징이 함께 담겼다.

또 '플라즈마 케어 UVC'를 시범 적용한

기아 PV5를 중심으로 어린이 등원 차량, 과일 판매 차량 등 다양한 모빌리티 환경에서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차량 실내 위생 관리 기술이 목적 기반 모빌리티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현대차·기아는 '플라즈마 케어 UVC' 기술이 세계 최초로 자동차 실내 개방 공간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큰 가치를 제공하는 만큼, 면밀한 기술 검증 거쳐 실차 적용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스템' 일반형 모델 출시

### 소비자 선택폭 확대...주요 온라인 채널서 구입 가능

삼성전자는 올해 초 선보인 '비스포크 AI 스템 울트라', '비스포크 AI 스템 플러스'에 이어 일반형 모델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반형 신제품은 '비스포크 AI 스템' 시리즈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신제품은 고온 세척·스팀 살균·열풍 건조로 물결레를 위생

적으로 관리하는 '스팀 청정스테이션', 최대 45mm 높이의 단일 문턱을 넘는 '이 지패스 휠', 확장된 브러시와 물결레로 벽면 밀착 청소가 가능한 '팝 아웃 콤보' 기능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주요 기능을 두루 갖췄다.

특히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보안 솔루션 '녹스'가 적용돼 소비자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비스포크 AI 스템' 로봇청소기는 녹스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증기관 UL, 솔루션즈로부터 보안 안정성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를 획득하며 제품의 보안 신



삼성전자 모델이 프리미엄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실용성을 높인 비스포크 AI 스템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뢰성을 공식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부터 4주간 진행되는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패스티벌' 행사 기간 동안 비스포크 AI 스템 로봇청소기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디지털 은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행사 기간동안 AI 구독클럽으로 구독한 고객에게는 12개월 구독료를 지원 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신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구매 혜택은 삼성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